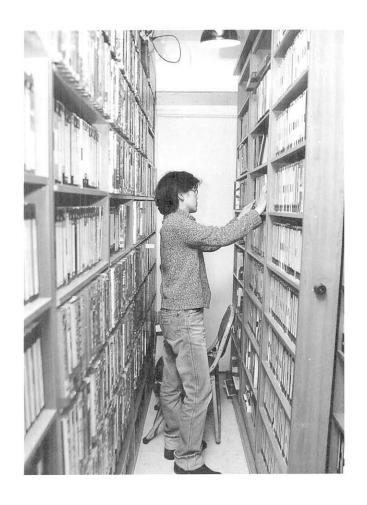
# 영상문화의 실험 정신 아이공([空)



음 핸드폰은 하는 일이 많다. 전화를 걸고, 받는 것 외에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미 지를 저장하고 동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기능이 있다 해도 걸고 받는 일 외엔 손도 대지 못하는 아날로그 세대들이 '예술' 로서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방식의 영상문화를 접하게 된 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5~6년 전만 해도 고가에 속 하는 디지털캠코더를 지금처럼 싼값에 살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캠코더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처럼 생활가전의일부분이 되어 있다. 예전의 기자회견장이라면 방송용 카메라 몇 대 하고 사진기자들의 수동카메라 몇 대가 스텐바이를 기다렸겠지만 이제는 이 보다 더 많은수의 비디오카메라가 행사장을 누비는 것이 흔한 일이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이들의 다양한 목소리 와 요구를 또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내는 기획집단이 있다.

## 소수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다

영화와 미술,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예술 장르가 있 다면 그건 어떤 것일까...

"비디오는 40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영상매체입니다. 1970년대 비디오문화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이 비디오로 표현되었습니다. 흑인들의 인종문제, 여성해방운동,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비디오'를 통해서 입니다. 대형 방송국에서 그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얼마나 내보내 주겠습니까? 그러니 직접자신들이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태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도소수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생각을 영상코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I空)의 프로그래머인 김연호 씨는 우리가 그저 텔레비전이나 세탁기처럼 가전용품의 하나인 줄로만 알고 또 그렇게 사용해 온 비디오의 숨겨진 역사를 들려줬다.

아이공이 하고 있는 일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생소한 분야다. 1999년 만들어진 이들은 그 전에 있 었던 영상집단 '비디오연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당시에는 상근체제가 아닌 협의체에서 작품상영을 하



레이블 영상의 하나인 비주얼 락

거나 작품을 평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 '비디오 작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다 '아카이브 기획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기획전은 새로운 영상을 발굴, 담론화하는 기획으로 약 300 여편의 디지털 비디오 작품을 상영하는 것이었다. 이후 작가들이 모일 수 있는 판을 형성하면서 기획자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 '비디오연대'를 아이공으로 바꾸면서 단체의 성격도 180도 달라졌다. 말하자면 이론이나 담론, 다양한 영상문화를 보여주려는 비디오문화의 기획이 중심활동이 된 것이다.

## 새로운 장르 창조

아이공은 비디오 포엠, 레이브 영상, 포스트 다큐 멘터리, 인디비디오 등 국내에서 비주류로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영상예술들을 이론화하고 실천하는 문화운동 단체로 알려졌다.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의 것들인지 짐작할 수는 있지 만 솔직히 이런 영상물을 접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비디오 포엠은 말 그대로 문학작품과 영상이 어우 러져 시를 읊는 것인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로 읊기 도 하고 단순한 단어 몇 마디와 간결한 영상으로 강 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레이브 영상은 전자음의 반

## 작은걸음 다른세상



새로운 영상코드를 소개하고 연구 · 담론화 하는 역할의 아이공 기획자들

복적인 사운드 비트를 이용한 테크노 음악과 영상이 혼합된 장르이다. 다양한 이미지의 즉흥적인 조합, 융합, 해체 등이 특징이다. 포스트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사실 기록만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시선이 작품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다. 일반 다큐멘터리도 물론 작가의 주관이 개입 되지만 포스트 다큐멘터리는 주관적 시각 자체가 중심이다. 이를 통해 보자면 인디비디오는 장르의 탈 경계, 새로운 영상에 대한 모험, 주제 또한 기성세대에 반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있겠다.

이외에도 영상을 만든 작가가 직접 그 영상물에서 퍼포먼스를 보여 주는 비주얼 퍼포먼스라는 장르도 있다. 낯설고 다양한 장르, 이것도 아주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장르 하나하나를 이미지화 하는 데 꽤 많은 시 간이 걸렸다

"저희가 해마다 개최하는 '인디비디오 페스티벌'에 는 청소년들도 꽤 많이 참여하고 특히 외국의 영상물 을 상영할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매니아도 어지 간히 있어서 호응도 꽤 좋고 비평도 많이 하는데... 집에 있는 비디오캠코더로도 충 분히 예술영상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누 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 이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보태는 순간 세대의 간극 이 꽤나 멀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혼자 만의 넋두리일까?

#### 실험정신의 모태 '인디비디오 페스티벌'

실험정신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이 페스 티벌은 비디오매니아들에겐 알려진 행사 로 지난 1999년 아이공이 출발함과 동시 에 시작해 세 번째를 맞고 있다.

D-100일 이란 주제로 수능시험일까지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고3 수험생의 모습을 대표적인 '비디오 엑티비즘' 작품이라며 소개했다. 보고 있자니 D-100일 때 얼굴과 D-50일 때의 표정은 다르다. D-10일이 되어서는 초췌한 얼굴과 초긴 장의 표정이 드러나고 만다. 중간 중간에 수험생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고 비디오에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시험만 끝나면...' 하기도 한다. 이건 또 뭔가? 그냥셀프카메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좀 더 들어보니 비디오예술의 한 장르이기 때문이란다. 새로만들어진 비디오물의 장르, 어쩌면 이런 생각 또한 주류문화에 고정관념이 박혀 버린 우리들의 시선일지도모르겠다. 필름카메라로 제작된 극영화만이 영상예술이 아니듯 이것도 작은 분야의 예술장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디지털이라는 매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력이나 사회권력의 지배이데올 로기가 몇 백 년 동안 고착화 되어서 소수의 목소리는 '권력'에 의해 묻히게 돼 있습니다. 바바라 헤머(페미 니스트 실험영화 감독)는 자기 작업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내가 만든 작품이 인류의 진정한 역사인가, 다양한 역사의 목소리가 들어 있나'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영상세대가 '비디오'라는 매체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의 내용이 '저항성' 이라 볼 수 있다며 그는 말을 잇는다.

"여성문제나 장애인, 성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다못해 진보적이라는 매체에서도 소수의 소리는 정확히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곡된 정보만 알려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영상문화의 대안은 무엇이 냐고 묻자 그는 주저 없이 말했다.

"장르를 해체시켜야죠.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사회의 다양한 소리를 듣지 않고 다수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권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상도 필름 카메라로 만드는 극영화의 권력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표방한다고 덧붙였다

### '비디오'를 통해 사회를 보다

현재 다섯 명의 기획자가 일하고 있는 아이공은 새로운 영상을 발굴하고 담론화하는 작업을 기획하는 아카이브 기획전, 탈 경계 영상문화축제로 새로운 시각, 실험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영역을 깨는 인디비디오 페스티벌, 학술강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대중과

좀 더 친숙해지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단행본을 제작 하는 작업도 한다.

특히 영상에 관한 기획력을 인정받아 제작한「디지털 영상예술 코드 읽기」는 중요한 성과의 하나다. 또한 그들은 작가들에게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도와주기위해 사무실 한켠에 작은 디지털 편집실을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장비를 사용하고 비디오테이프를 복사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게했다.



제2회 인디비디오 페스티벌에 모인 관객들

T 空'아이공. 풀이 하자면 영어 I는 '나' 개인을 말하고, 한자 空은 공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창작자 개개인이 서로 다르게 영상문화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뜻인데, 그야말로 이름을 만드는 데도 또 하나의예술적 성격을 드러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늘가던 음식점을 가고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늘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일에 익숙한 우리에게 던지는 이탈 영상의 장르 또한 신선한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주류문화에 던지는 그들의 메시지가단순히 비주류의 저항쯤이 아니란 걸 일반 대중들에게 꾸주히 알려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편집부〉